

2009 APACPH 출장보고서

2009 · 12

통계청 통계기준팀

「2009 아시아태평양 보건학술회의(APACPH)」

참가결과 보고

1. 회의개요

○ 회의목적

국가 보건, 광역 유행병 및 장애 등 보건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학술자료의 발표와 논의를 진행

○ 기간

2009. 12. 3~12. 6 (3박 4일)

○ 장소

NTUH(National Taiwan University Hospital),
National Taiwan University College of Public Health

○ 출장자

통계기준팀 통계주사 전택련

○ 주요일정

일 정	주 요 내 용
12. 3(목)	입국, 회의 등록
12. 4(금)	본회의
12. 5(토)	
12. 6(일)	출국

2. 회의내용

○ 국제 보건 관련

- 국제보건 관점에서 보건은 점차 범세계적이면서 동시에 지역 실정도 고려하는 개념(Glocal, global to local)으로 변화하고 있음
- 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보건 분야는 이때까지 유럽과 북미에의 일방적인 접근방법에 크게 의존해 옴
 - 아시아-태평양 지역의 보건전문가는 유럽과 북미국가의 경험을 수용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으며 국제 보건에 거의 공헌하지 못하고 있음
- 아시아-태평양 국가는 국제보건 분야에의 참여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WHO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공조 체제를 증진시킬 필요 있음
- 신종 전염병 발병은 국가적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므로 국제적 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제적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함
 - 국제적 질병 관리 및 통제집계를 위하여 새로운 질병에 대하여 코드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, 시의성 있는 질병 보고를 위해 WH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적 감시 체계가 상호 협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

※ **국내의 인플루엔자 A/H1N1(신종플루) 처리 과정**

- 2009. 3월에 멕시코에서 첫 발병 사례가 보고된 이후 WHO에서는 2009. 4. 25일에 첫 긴급회의를 가짐
- 분류와 관련하여, 2009. 4. 29일에 WHO에서 각 국에 해당 질병을 J09로 분류할 것을 권고함
- 우리나라에서는 신종플루로 인한 첫 사망자가 2009. 8월에 발생하였으며, 사전에 관련기관으로 분류처리를 공지함에 따라 혼란 발생 없었음

○ **장애에 대한 새로운 관점**

- 질병의 결과에 대한 분류 개념에서 벗어나 건강의 구성 요소에 대한 분류 개념으로 발전
 -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개발
- ICD 체계에서는 의사가 진단에 의해 질병 분류를 하나, ICF 체계에서는 의사, 기타 의료종사자, 그리고 사회복지사 및 특수교육종사자가 총체적으로 기능 및 장애에 대한 분류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양식을 작성
 - ICD는 질병과 진단을 위한 체계이나, ICF는 총괄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체계임
- 최근에는 ICF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에서 발전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분류하는 ICF-CY¹⁾ 도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

1) ICF-CY: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, Disability and Health-Children and Youth의 약자로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중점을 두어 ICF를 재구성한 분류체계

- ICF-CY의 통계적인 응용방법은 ICF와 마찬가지로, 인구 총조사, 장애인 등록, 의료정보학 및 연구에서의 표준화된 변수로서의 활용을 권고함
- 회의 주체국인 대만은 2007년 장애인권리보호법을 통과 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ICF의 개념을 활용한 장애인 평가 시스템이 시행됨

3. 회의결과 및 시사점

- 보건 및 의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시스템을 지배하는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므로 국제적 흐름을 분석하여 한국 보건분류 개선 작업에 반영
 - 인플루엔자 A/H1N1의 코드부여 및 폐렴 동반/기타 호흡기 증상 동반/기타 증상 동반에 따른 분류 세분화 방향 반영
- 한국기능장애건강분류가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아시아-태평양 국가의 ICF 도입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개발 방향에 반영
- 아시아-태평양 지역 국가의 전문가들과 교류를 통해 최신 정보 습득 및 향후 업무 협조의 용이성 기대

[붙임] 회의소개

【아시아-태평양 보건학술회의(APACPH)】 **(Asia-Pacific Academic Consortium for Public Health)**

- 호주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1984년에 발족하였으며 현재는 방콕, 베이징, 브리즈번, 하와이, 도쿄에 지역 사무소를 두고 55개의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음
-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사람들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,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능력을 고취하고 교육 및 연구의 전달을 통해 보건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수행
- 목적
 - 보건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타당성 강화
 - 지식을 전파하고 기술을 개발하며 효율적인 개입 설명
 - 현재 드러나거나 다시 불거지는 보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 방안 개발
 - 보건시스템의 역량 및 지속가능성 증진
 - 건강개발정책 지원
- 주요 회의주제
기후변화 및 건강보건, 안전한 지역사회, 건강형평성, 1차 진료 및 보건, ECN 프로그램, ASPHER과의 공동 프로그램, 원격진료 및 원격보건, 인간존엄성 및 NGO, 재난 준비, 직업 및 환경 보건, 국가건강보험, 세계구강보건, 손상 예방,

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, 의료 커뮤니티, 역학적 전이, 변화하는 연구환경, 신종전염병(EID) 및 재창궐전염병, 지역대학 및 보건, 기후 연구 및 보건, 비전염성 질환(GIS), 정신 보건, 토착 건강 등